

뿌마띠,  
캄보디아에 살어리랏다,

라운아띠 10기 캄보디아팀  
이의성.박광욱.김은지.배보람.황유선

9월 아띠활동보고서  
2013.9.6~2013.9.30  
Takhmao in Cambodia

# 목차

## 소개하기

단원소개

파견기관소개 Cambodia Caritas

기관 스텝소개

지역 Takh Mao

## 9월 일정

Search And Rescue seminar

Youth Development Program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카리타스 긴급구호키트 작업활동

프놈펜 KB국민은행 방문

## 일상엿보기

캄보디아 문화체험

현지 적응기

## 새로운 파트너, 첫기수로서의 한달

단원고민

한달총평/Feedback

## 쉬어가기

캄보디아 말말말



Ssung 이의성 (CD)  
/ 목짱남(목이 짱겨서 슬픈 남자),  
보라돌이, 미모사덕후



Wook 박광욱 (CD)  
/ 태국시민, 멧콧집착남, 코이카를 사랑하는자

## 단원 소개



싸이누 배보람 (CD)  
/ 나는 초가에(개)다.  
어을럭(캄보디아수박)달음.  
스캔들마스터.



찌 김은지 (YDP)  
/ 캄보디아산 곡괭이.  
Man of Man. 피리부는 소년



ReakSmey 황유선 (YDP)  
/ 모기를 지배하는 자.  
황단호박. 2덕.

# 파견기관소개-Caritas Cambodia



카리타스(Caritas)는 라틴어로 '사랑', '애덕', '자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복지, 긴급구호, 개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전 세계 201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교황청 산하 가톨릭 국제기구입니다. 특히나 긴급구호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카리타스는 프놈펜에 National office를 두고 8개의 지역을 Target Area로 지정해서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Health Program, HIV/AIDS Program, Takeo Eye Hospital, CCAMH, Right Based Approach and Advocacy, Disaster Management Program, Gender and Anti / trafficking, Youth Development Program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파견기관소개-Caritas Cambodia



아띠들이 활동하게 될 지역은 8개의 지역 중 한 곳인 Kandal 지역입니다. Kandal 은 Youth Development와 Community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YDP 는 Youth Center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DP 는 마을에 VDA를 조직하여 선진농업기술 도입, Microcredit 운영 등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 의한 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현지식구들 > > > >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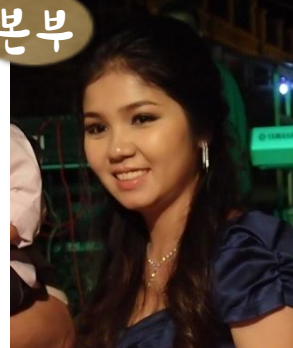
이름: Rattana  
역할: 캄보디아카리따스대장님  
특징: 대장님기운이 느껴집니다.

본부



이름: Makara  
역할: 캄보디아카리따스이사  
특징: 캄보디아의하정우

본부



이름: Thearn  
역할: 대외협력  
특징: 빛이나는미모

YDP



이름: Phirum  
역할: 따그마의 유스센터 총괄  
특징: 카리스마

YDP



이름: Bora  
역할: 컴퓨터선생님,  
기숙사사감  
특징: 장난을 많이 치심

YDP



이름: Panha  
역할: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  
특징: 친절함. 소통의 대가

YDP



이름: Sokchear  
역할: 미술선생님  
특징: 열정의 드로잉

YDP



이름: Sophear  
역할: 한국어교실 담당  
특징: 캄보디아 귀남

YDP



이름: Thann  
역할: 영어교실 담당  
특징: 라코스테 매니아

# 함께하는 현지식구들 > > > >

CD



이름 : Chay Meng  
 역할: CD 매니저  
 특징: 동네아저씨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카리스마

CD



이름: Sam Nang  
 역할: CD 스텝  
 특징: 항상 행복하고 싶은 형



CD



이름: Chy Sophorn  
 역할: 회계사  
 특징: 아피들이 어딜가든 1순위로 보고해야 하는 담당자!

CD



이름: Yim Samenn  
 역할: CD 스텝  
 특징: 귀엽게 생긴 왕범빵씨

CD



이름: Khon Rithy  
 역할: CD 스텝  
 특징: 까리파스 미소천사

CD



이름: Ny Sopheap  
 역할: CD 스텝  
 특징: 사이보이

# 따끄마을을 소개합니다



아띠들이 활동하는 센터주면은 주요생업이 화훼농업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가 하나의 정원같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화분들이 많이 있고, 날마다 분갈이와 물주기가 주된 하루 일과로 보입니다.

생업

상권

- 따끄마을 시장 :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마치 한국의 재래시장과 흡사합니다.
- 럭키몰 : 새로 문을 연 대형마트로, 홈플러스 같은 느낌입니다.
- 구멍가게 : 가정집의 일부를 가게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센터 선생님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이곳 센터아이들의 단골가게입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에 특별한 특징은 없으나, 까리따스 유스센터로 인해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띠들이 낯선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인사를 받아주십니다. 주말마다 센터 운동장으로 마을 아이들이 놀러와서 즐겁게 축구를 하고 가곤합니다.

사람

이동

주 교통수단은 '톡톡'과 '모토톱', 그리고 버스같은 리어카인 '러무아'가 있습니다. 특별한 정거장이 없이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아띠들이 살고있는 마을에서는 요즘 도로포장공사가 한창이어서 먼지와 모래바람이 많이 날리는편이며 마을시장까지는 10분, 수도인 프놈펜까지는 30분정도가 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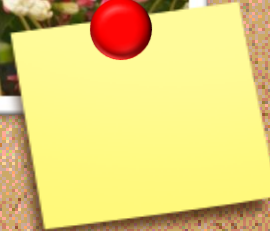


# 따끄마을을 소개합니다

생업



달려  
달려~





# Search And Rescue 세미나



폭우, 번개, 천둥, 벌레까지..  
정말 재난 같았던 야간실습!



캄보디아에서 아띠들이 한 첫 활동은 9월 10일 부터 14일까지 깡뽕툼 지역에서 진행된 SAR(긴급구호) 교육이었습니다. 아띠들은 재난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고 희생자를 구조하기 위한 방법들을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구호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된 교육은 아니었지만 아띠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서 교육에 참여한 현지분들과 감사였던 까리따스 파키스탄 직원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 Youth Development Program

## English Class

언제: 10월~ 2월초

어디서: Caritas 따그마의 YouthCenter

무엇을: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영어수업을

어떻게: 활용문장과 게임을 통해 재미지게

누구와: YDP학생들

왜: 향후 직업을 찾을 때 역량 강화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지만  
재료가 구하기 힘들어 만들어  
보지 못했던 것

## Handicraft

## 한글교실

언제: 10월~ 2월초

어디서: Caritas 따그마의  
YouthCenter

무엇을: 그 어렵다는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드라마를 통해 재미지게

누구와: YDP학생들 및

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때문

## Spor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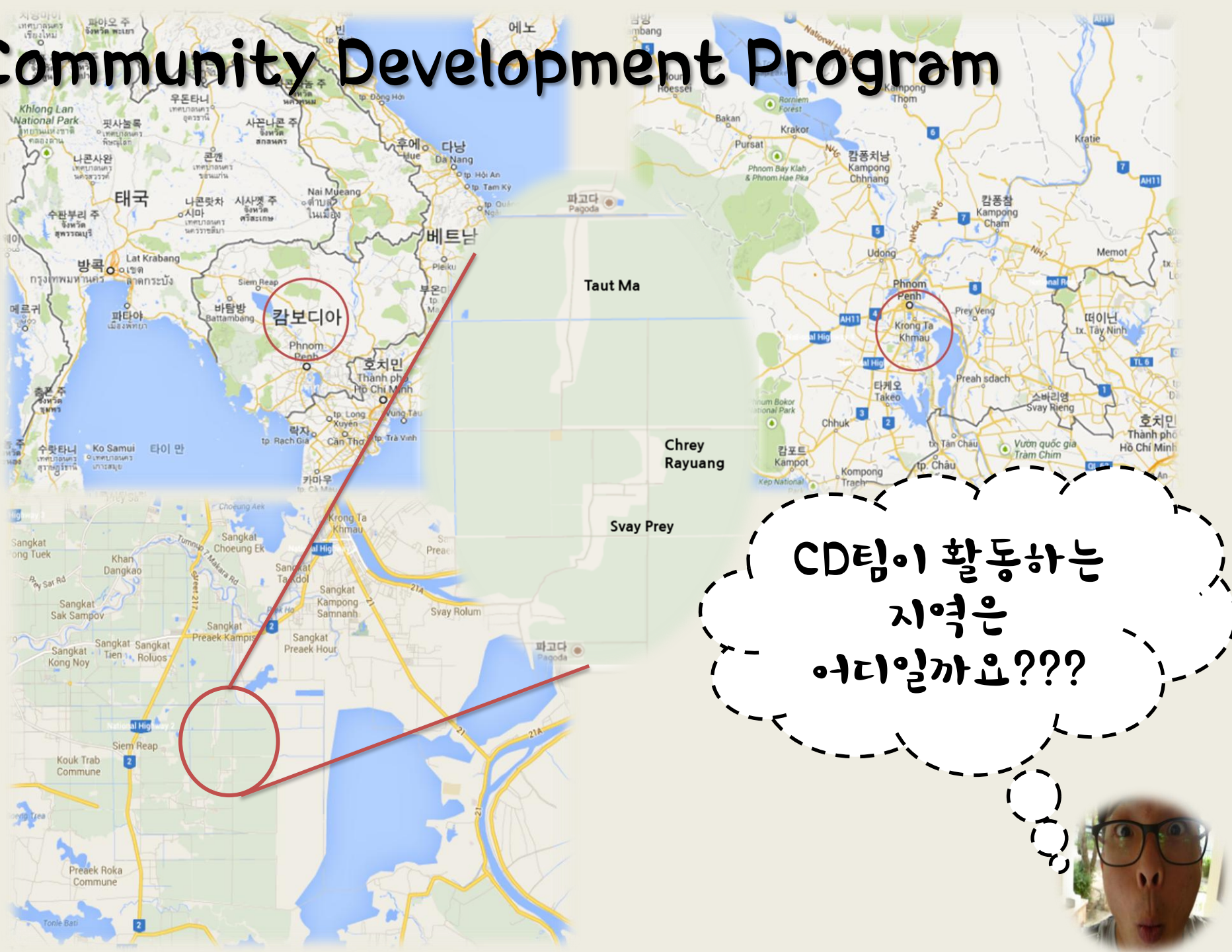
- 주말에 youth들의 자유시간 동안 자유롭게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활동을 함.

-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단원이 주축이 되어 12월에 있을  
졸업발표회 때 공연을 기획

-아이들이 좋아하는 K-POP을 함께 배워보기로 함.

# YDP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CDE팀이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CD팀의 첫 활동은

**Organic Fertilizer and Botanical pesticide** 제조 방법 교육이었습니다. 국내훈련 때 수원 Y에서 배웠던 EM을 캄보디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활동할 VDA(Village Development Association) 멤버들과 하는 첫 활동이었기 때문에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띠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서 5개월간의 활동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CD팀의 두 번째 활동은 주 활동지역인 **Taut Ma, Svay Prey, Chrey Rayuang** 마을을 방문하여 Key Farmer 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방문을 통해 Key farmer 들의 공동체인 VDA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까리따스가 VDA와 함께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VDA에서 관리하는 공동의 쌀 창고와 Microcredit 등은 국내에서 배웠던 마을공동체나 생활협동조합과 비슷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접했던 마을공동체를 캄보디아에서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띠들은 마을에서 농사, 양돈, 양어, 양계, 버섯재배 등 농가들의 일손 돕기 뿐만 아니라 까리따스의 파일럿 사업인 green house 사업에도 참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홍수지역 긴급구호 키트작업

01. 엄청난 양의 구호키트를 작업중인 은지 단원

02.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트럭에 싣는 작업

03. 본부 사무실에 꽉 찬 구호물품들. 이것은 단지 일부에 불과했다는 소문이....



9월 말 캄보디아에는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9~30일 동안 아띠들은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까리따스 본부로 가서 긴급구호키트제작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생필품, 식량, 담요 등을 한 세트로 만드는 작업과 구호물품로 고부착작업, 그리고 이들을 모두 트럭에 싣는 작업까지.. 긴급구호활동은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TV에서 보던 긴급구호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아주 작지만 중요한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휴일임에도 모든 직원들이 나와 구호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띠가 파견된 기관인 까리따스가 긴급구호국제단체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작업량 때문에 몸은 무척 힘들었지만, 홍수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KB 국민은행 프놈펜지점 방문



지난 27일, 프놈펜에 있는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현지인 직원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라온아띠 캄보디아팀들을 맞아주셨던 부장님과 차장님께서 저희 10기 또한 굉장히 반갑게 반겨주셨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파견나오신 직원분들도 계셔서 더욱 더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띠들은 그토록 먹고 싶었던 한식당에 가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디저트도 배불리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놈펜 곳곳에 있는 명소들을 직접 지도에 표시해 주시면서 지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면서 건강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남은 4개월 응원해주신 만큼 더욱 더 열심히 잘 살다가겠습니다!



# 캠핑의 일상 엿보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 캄보디아 문화체험



9월 6일 부터 현재까지 저희 캄팀은 캄보디아의 모든 것을 알고 특히 그들의 정신까지 알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캄보디아의 정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활동은 바로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프놈펜에 있는 프싸 오르세이, 따끄마의 파고다, 프싸 따끄마의 등을 방문하여 현지음식과 더 친해지고 현지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호호

# 캄보디아 파티문화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지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파티 문화로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의 파티가 있습니다.

이 곳 문화의 특징은 남녀노소 이날 만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파티를 즐긴답니다. 또한 파티 주최측에서는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대접하는 것을 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티에서 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노래하기, 두번째는 춤추기입니다.

저희 5명은 이런 파티가 있을 때마다 가서 마치 신입생 환영회를 방불케 하는 춤과 노래가 어울어진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 01.

까리따스 현지 본부 스텝 아들 돌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이 날만은 작업복을 집어던지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꺼내 입었습니다

02. 일주일 간의 SAR 포럼이 끝난 후 참석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한 뒷풀이!! 캄보디아 4성 장군님과 함께 했던 대망의 뒷풀이!!!!



# 캄보디아 생활적응기ㅠㅠ



## 먼지와와의 전쟁

밖에 나갈때면 엄청난 모래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마을로 출근하는 CD팀의 기관지건강이 염려됩니다. 툭툭이를 타고 시장에 갈때에도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꼭 막아야해요!



## 모기30가구에게 식량제공!!!!

어언 한달 동안 모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단원과 유선단원, 보람단원이 모기입맛에 딱인 가뭇니다- 모기퇴치제도 소용이 없네요.



## 진격의 쥐!!!!

여자단원들의 방에 쥐가 출몰하였습니다! 쥐 배설물과 소음으로 고생하던 단원들은 드디어 짹짹이를, 설치!!! 여덟 마리를 잡았고, 드디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 따끄마의 파견 첫 기수, 새로운 파트너 까리따스와의 첫 달을 보내며-

## 아띠들의 활동에 관해서-

아띠들이 까리따스에 도착해서 첫 미팅을 했을 당시 까리따스에서는 이미 YD(Youth Development), 와 CD(Community Development), CCAMH(Centre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총 3개 팀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많이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CCAMH는 간 호전공인 보람단원을 위해서 까리따스 측에서 준비하던 활동이었지만 CCAMH 측에서 확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CD팀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띠들이 5개월간 활동을 나누어서 하게 될 경우 팀원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팀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까리따스 측과 사무국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 하였고, 앞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아띠들의 숙소에 관해서-

까리따스에서는 아띠단원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숙소를 구하지 못해 남자단원과 여자단원들이 각각 남,녀 기숙사에 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살 게 되면서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는 현지 학생들과 쉽게 친해졌지만, 아띠 5명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였고 함께 모여있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지 사무국의 협조로 저녁에 사무 실을 일정시간 개방해주셨지만, 현지 상황 상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아띠 팀원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이며, 조정중입니다.

# 단원 고민거리

## 의성

라온아띠로써 캄보디아에 와서 생활하면서 국내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현지에서의 생활패턴이라던가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 음식이나 현지 문화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것 같다. 현지에 와서 가장 크게 고민했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팀원들간의 관계이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마음을 터 놓고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조금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려 한다. 친구로, 오빠로 팀원들에게 쉽게 다가가려고 했던 방법 중 하나가 장난이었다. 팀원들에게 짓궂게 장난을 칠 때도 종종 있었지만, 팀원들이 다 잘 받아주고 같이 장난을 치며 넘어간다. 그런데 과연 이게 팀원들과 정말 친해지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친해진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가는데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내가 팀원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생활하면서 팀원들과 서로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

처음 이곳에 와서 했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애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까였다. 이곳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은 맞지만 억지로 급급하게 관계를 쌓는 것은 싫었다. 하지만 그래야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느껴져서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결국 시간에 맡기기로 하고 첫 한 달 동안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했다. 두번째 고민인 의사소통. 크메르어도 조금씩 잘 배워가고 있고, 걱정하던 영어는 생각보다 큰 걱정이 아니었다. 내 영어실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더 큰 장벽이었던 것 같다. 많이 말하고 들으려고 노력하니 말을 거내는 것 자체에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이제는 스텝들과의 대화에도 큰 두려움 없이 잘 해나가고 있다. 아직 풀지 못한 고민은 '자원활동가'로서의 아띠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온 팀원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계쌓기' 때 느꼈던 노력의 필요성과 자연스러움의 경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라는 단어 자체가 나에게 너무 큰 그릇인데, 그 그릇에 날 억지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싶지는 않다.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하루 하루 많이 보고 느끼고 살며 천천히 생각해봐야겠다.

## 유선

## 광욱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인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는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귀를 닫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현지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현지 사람들과 가장 쉽게 친해 질 수 있는 방법 역시 귀를 열고 많이 듣고 입을 열어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귀를 열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며...쑥쑥!!

은지

한 달을 지내면서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다. 첫날부터 시작된 현지어와 영어의 바깥은 나의 비어있던 머리를 크게 강타했다. 그리고 시작된 언어와의 전쟁. 하루에도 수십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내가 가장 근심했던 것은 이곳 사람들과 제대로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할 수 없단 것이었다. 나에게 말을 걸어 준 사람들과 내가 말을 건 사람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쌍방향적이지 못했다. 이런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언어가 더 늘고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다. 또 다른 고민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디까지 다가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우리가 있는 센터의 아이들은 12월이 되면 떠나는 아이들인데 한국에서 배운대로 그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아닌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았다. 이런 나의 고민은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있는 중이다. 10월 달도 파이팅!!!!

## 보람

팀에서 소통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현지 스텝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았다. 더군다나 사이트와 호스트기관이 바뀌는 첫 기수라서 대부분 새롭게 세팅 해야 할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이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며 언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하지만, 답답해지면 얼굴에 잔뜩 먹구름을 티 내는 나를 현지 스텝들이 더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려는 서로의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이곳 친구들도 나와 같이 답답한 마음일 테니.. 영어도 크메르어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가가기 위한 무엇인가'를 하라!



# 한달총평/feedback

## 1. 생활

처음에는 많이 다른 화장실문화, 함께 사는 동물, 곤충 그리고 식문화 등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해가는 듯하다.

## 2. 일

첫 사이트, 처음 만나는 기관과의 만남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한국사무국, 우리라운아띠, 현지사무국 세그룹의 소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현지 기관에서도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 만큼 YDP와 CD팀과의 소통 또한 부족한 것 같다.

## 3. 관계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서로의 부족한 언어실력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심도있는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렇지 못함에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전체적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큼 현지사무국, 한국사무국, 우리라운아띠 모두가 서로 더욱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더 좋은 아띠활동을 해야겠다.

영어뿐만 아니라 현지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언어가 많이 힘들더라도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해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 다음달 Idea ?

지난 한달동안은 현지에 적응하는데 온 정신을 두고 있었을 뿐더러, 활동이나 뛰어졌던 만큼 우리 팀원들끼리의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다음달에 우리 팀원들을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뿌마띠의 **맘맘맘**

목 캬 짜란!!

모기 많아요  
물 샴셔요

꺼덜  
미은 짜란!

주기가 많아요

클리는 바이나~

배고파요

남바이~

밤머자~



